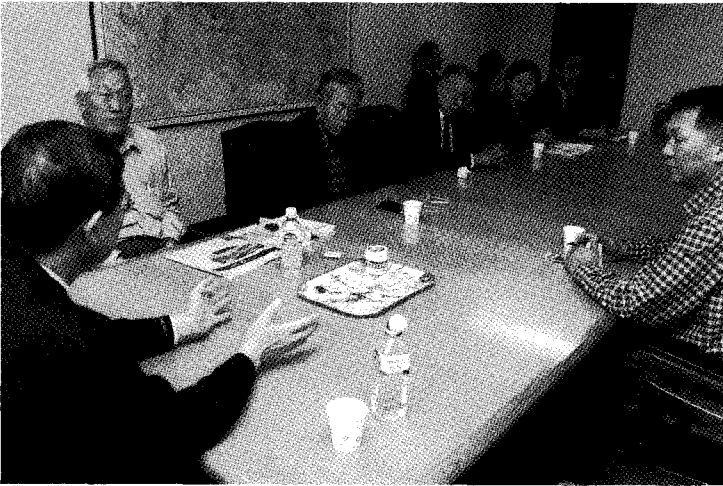




##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 박홍수 중앙회장, 한·칠레 FTA 반대 농림부 점거농성



▲ 지난 17일 농림부를 점거하고 농림부장관과 면담중인 농민단체 회장들. 농림부장관은 한·칠레 FTA를 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협상중이라고 했지만, 일주일뒤 한·칠레 FTA는 전격 체결되었다.

한농연중앙연합회 박홍수 회장은, 우리 농업을 해체하는 한·칠레 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농림부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번 농림부 농성에는 한농연 박홍수 중앙회장과 탁명구 정책실장을 비롯,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강춘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재정 한국포도회 회장, 김인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박종부 새고성농협 조합장, 장원석 단국대 교수, 김인식 WTO국민연대 사무총장, 이충선 농단협 정책팀장, 김인기

WTO국민연대 정책부장 등이 동참하였다.

한농연은 농림부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 농업분야의 피해를 외면하는데 급급하여 졸속으로 한-칠레 FTA를 체결하려는 김대중 정권은, 역대 가장 반농업적인 정부로 낙인찍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아울러,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한·칠레 FTA 6차 협상과 한·칠레 FTA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한농연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 실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10월 초부터 중앙연합회 홈페이지(www.kaff.or.kr)를 통해, 각종 농정현안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란은 한농연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 중간 부분에 있는데, 한농연 홈페이지에 가입한

농업경영인 회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농연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객관식으로 되어 있는 설문조사 응답란에 클릭한 뒤 설문조사 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중복응답은 불가능하다. 설문조사는 1개월 간격으로 이루어지며,

**설문결과보기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투표진행상황**

쌀농가 소득보장정책 중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투표 기간 : 2002-10-01 부터 2002-10-31 까지  
총 투표수 : 35표

|                 |             |
|-----------------|-------------|
| 1. 직접직불제 단가인상   | 16표 / 45.7% |
| 2. 쌀농가소득안정기금 마련 | 7표 / 20%    |
| 3. 정부추곡수매가 인상   | 6표 / 17.1%  |
| 4. 간접소득보전대책 확대  | 6표 / 17.1%  |

새로고침      닫닫기

**설문조사**

Q. 쌀농가 소득보장정책 중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직접직불제 단가인상

쌀농가소득안정기금 마련

정부추곡수매가 인상

간접소득보전대책 확대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 지난투표  
2002-10-01 ~ 2002-10-31

내용은 농정현안과 농권활동에 관한 것으로 설문결과는 한농연의 정책방향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여지게 된다.

이번 서비스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누구나 농정참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10월말까지 '쌀농가 소득보장정책 중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항목을 선택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수의 회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10월 16일 한농연 대선공약 기획위원회 개최

10월 16일 오후 2시, 한농연회관 회의실에서 「한농연 제2차 대선공약기획위원회(위원장 김세기 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획위원들은 11월 5일 「제16대 대통령후보 초청 한농연 농정공약 대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한농연 대선공약안을 심도있게 심의·검토하였다.

또한 10월 15일에는 김숙희 전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농업계·시민사회단체 대표·원로를 중심으로 「대선후보 초청 한농연 농정공약 대토론회」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3일에는 「대선후보 초청 한농연 농정공약 대토론회」 기획위원회가 열려 11월 5일의 「농정공약 대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국제농업NGO대회 · WTO국민연대와 함께 공동 개최

‘세계농업NGO연대’를 결성키로 하고 초대회장으로 박홍수 중앙회장을 추대

한농연중앙연합회와 WTO국민연대가 공동주관하고 국내외 60여개 NGO가 참여한 ‘국제농업NGO대회’가 ‘세계농업NGO연대’의 결성에 합의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2002 경주 세계농업한마당」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농업NGO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유럽국가의 농업관련 NGO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국내 30개 시민·사회·농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10월 11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농업NGO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김충실 WTO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의 주제발표(WTO농업협상에 관한 인류의 결단)에 이어 진행된 제1주제 농민의 권리, 제2주제 농업과 환경, 제3주제 농업관련 국제NGO간 연대방안 등 각 주제별 세미나에 참석하여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WTO의 농업 상품화, 무역자유화 기조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세계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의 농업관련 NGO 및 농민단체, 여성농민단체, 협동조합 등을 총 망라한 ‘세계농업NGO연대’를 결성키로 하고 초대회장으로 박홍수 중앙회장을 추대했다. 또한 세계농업NGO연대의 틀을 만들고 각국간 의견조정 등의 실무추진을 위해 한국, 아시아, 유럽, 남미(바베이도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60개 NGO단체들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무분별한 무역자유화, 신자유주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 농업의 자유무역화와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02 경북 국제농업NGO대회 선언문 -

... 앞부분 생략 ...

우리는 WTO와 UN 특히 FAO, UNCTAD와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그리고 각국정부 및 다국적기업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2002 경북 국제농업NGO대회'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농업관련 단체들이 단결된 힘으로 향후 무분별한 농산물의 자유무역화를 저지하고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과 농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WTO는 WTO와 UNCTAD가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농산물 무역 및 대외투자의 추가 자유화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고,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각국이자국의 실정에 맞는 농업의 생산활동과 식량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그 보완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UN 등 국제기구는 세계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계 기아, 농업인과 농촌여성권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실시하라.

하나. 각국 정부는 안보산업이며,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산업종사자인 농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 실시하라

하나. 다국적 기업들은 농업관련사업 및 곡물저장사업의 지구적 기업합병을 통하여 전세계 농민(특히 개도국 소농)들을 위협하는 독점적 지배체제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2002. 10. 13.

세계농업 NGO 연대회의 및  
2002 경북 국제농업NGO대회 참가자 일동

스) 대표들로 준비이사회를 구성하고 한국의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에서 간사단체를 맡아 실무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국제농업NGO대회 참가자 일동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선언문을 채택하여 WTO의 농업에 대한 무분별한 무역자유화와 농산물의 상품화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아울러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농업의 생산활동과 식량자급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각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농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2002년 경기도연합회 협동조합 임원교육 개최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는 지난 10월 10일(목)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도연합회와 시군연합회 임원 및 한농연 회원출신 이·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협동조합 임원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은 바쁜 농번기임을 감안하여 오후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특강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가진 특강에서 박홍수 한농연 중앙회장은 "2001년도를 협동조합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종 사업들을 진행해 왔으며, 이제는 지역에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강이 끝난 후 개최된 토론회는 '협동조합 이·감사, 조합에 이렇게 참여하자!'라는 주제로



▲ 지난 10월 10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 협동조합 임원교육 장면.

황민영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재덕 한농연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기태 지역농업네트워크 경남지사장의 주제발표 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 토론자인 남장현 일죽농협 이사는 지역 농협에서 노조가 결성되어 조합과 심한 마찰을 빚다가 노사가 합의하여 노조를 해체하고 직장협의회를 발족하여 조합 임원과 직원간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등 상호 이해를 돕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일죽농협 일련의 사항들에 대하여 지정토론을 하였다.

제2토론자인 성기전 전국농협노조(이하 전농노) 경인본부 사무국장은 “전농노의 목표는 노동자의 근로여건 향상, 농협개혁, 농업·농촌 문제 해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3토론자인 박종수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농협엔 책임지는 주인이 없다”고 전제한 뒤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이 유통에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도 인식제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농협의 규모화를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노조문제에 있어서는 조합원과 노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노조와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조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을 가능하면 조합원 자녀들로 채용해 농업과 조합을 이해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다.

제4토론자인 한기섭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농촌지원팀장은 이·감사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이사는 집행기관으로 조합장이 잘하면 전폭적인 지지와 반대시 질책이 있어야 하지만 견제가 너무 강하면 소신있는 일처리가 불가능 하므로 조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제5토론자인 장중익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협동조합에서의 노조활동은 사회개혁에 농민과 노동자가 함께 가야하는 관계로서 협동조합 개혁에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조도 참여해야 한다고 정의한 후 조합 경영에 투명성을 위해 직원의 출자, 일정정도의 경영참여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에서 조합 직원간의 임금차이를 인정하여야 하며, 조건이 불리한 조합 직원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으며, 조합의 불합리한 전횡에 대하여 조합원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정토론에 이어진 청중토론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합당한가의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연합회 차원의 대응 및 협력 문제, 간부직 직원의 임명 및 면직에 대한 이사회역의 역할, 직원 임금인상 문제, 조합원 자격으로 노조원이 될 수 있는지의 질문,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교육은 가을걷이 등 바쁜 일손에도 불구하고, 한농연 회원 출신 협동조합의 이감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교육과 토론회에 임하였으며 특히, 조합과 노조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인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평가였다.

## 경남도연합회, 경남도 농민단체협의회 창립

경남지역 1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경남도 농민단체협의회가 10월 18일 창립됐다.

경남 농단협은 이날 오전 경남농협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13개 농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공동상임대표에 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회 김흥기 회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 강기갑 의장 등 2명을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협의회 정관을 인준했다.

농단협은 지난 2000년 경남도 농가부채대책위원회와 2001년 경남쌀대책위원회를 계승하고 앞으로 각종 반농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도내 농민단체의 상시적 연대기구로 앞으로 농업회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게 된다.

특히 농가부채 및 농촌복지문제 해결 등 올바른 농업정책의 수립은 물론 대국민홍보와 정책개발, 지자체와 정부에 대한 농업정책 제언과 관련 경남지역의 주체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또한, 경남 농단협은 10월22일 한농연 주최의 400만 농민총궐기대회와 11월13일 30만 농민대항쟁에 공동 대응기로 하였다.

경남 농단협에는 한농연 경남도연합회와 전농 경남도연맹을 비롯 경남낙우회, 경남여성농민회연합, 쌀전업농 경남도연합회 등 16개 농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상주·울주·김제시 회장단 정부 농업예산과 관련 한나라·민주당 방문

김용준 한농연 상주시연합회 회장과 상주시회장단 5명 그리고 이종길 한농연 울산광역시연합회 회장과 3명은 10월 4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배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농림해양수산위원이자 예산결산위원인 권기술의원을 각각 방문하여 지난 9월 25일 발표된 2003년도 정부 농업예산과 관련하여 한농연의 입장을 전달하고 반영토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주시 및 울주군연합회 회장단은 먼저 논농업직불제의 지원단가를 ha당 70만원으로, 지급상한은 2ha에서 3ha로 높이고 이를 위해 내년도 3,942억원의 예산을 5,789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5억원밖에 되지 않는 내년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예산을 225억원으로 늘려서 경사도 14%이상의 8만ha를 ha당 25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농촌을 지키기 위해 후계인력육성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960억원인 내년도 후계농업인예산을 240억원을 더 늘려서 신규후계농업인을 800명에서 1,100명으로 늘려줄 것과 취농창업농업인을 1,200명에서 1,40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확기 산지쌀수급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비RPC농협의 벼매입자금을 562억원에서 697억원으

로 늘려줄 것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비 국고지원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준 상주시회장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배 의원에게 학교급식법의 재발의를 통한 조속한 개정안 통과와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상배 의원과 권기술의원은 지역구 한농연 회장단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김진필 한농연김제시연합회 회장과 김제시 회원들은 예결위원인 민주당 장성원 의원을 지난 3일 방문하여 농업부문 예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농연**

## 한농연 만평

김 휘 승

